사 설

수행가풍 진작의 해로

금년은 종단 안팎으로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저무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적으로는 6월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이어 국회의원의 재보선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다. 교육계는 이 달 말의 강원도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경북과 광주 교육감 선거가 있으며, 전국 권역별로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조계종은 2월의 용주사 주지 재선거를 필두로 범어사, 동화사, 화엄사, 불국사, 마곡사, 대둔사 등의 본사주지 선거가 월별로 치러질 예정이며, 연초의 종정 추대, 10월경의 중앙종회 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동국대 총장 선거도 연말로 예정되어 있다.

선거는 그 자체가 민의를 수렴하는 성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크지도 않은 나라, 지역, 단체나 조직을 온통 분열과 대립의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연, 혈연, 학연, 문중 등에 금권까지 가세하여 전국을 열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의 선거에서 수행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민주제도란 미명 하에 정치권과 대동소이한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대가로 지불하고 말았다. 내적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선거가 오히려 수행공간과 풍토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는 국가적인 선거도 겹쳐있는 만큼 종단의 선거가 사회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그 어느때보다 출·재가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때일수록 수행종문의 가풍을 지킨다면 빛나는 한해가 될 것이다.

미래불교 비전 '군포교'

조계종 포교원이 2002년을 '군 포교 진흥의 해'로 선포하였다.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씩 거치는 가장 중요한 황금어장을 방치해 왔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너무도 반가운 일이다. 인생에 있어 중요한 고비라 할 수 있는 군대 기간에 받은 종교적 감화는 신앙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군포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그것이 포교원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군포교가 소홀히 되었던 것은 일반 신도들과 일선 사찰, 그리고 종단 차원의 무관심이라는 총체적 인식부족과 무관심 때문이었다. 일반 사찰과 신도들은 군인들이 제대를 하면 자기 사찰의 신도가 될 보장이 없다는 단견으로, 종단차원에서는 미래 불교에 대한 비전 부족으로 이 문제를 뒤로 미루어 놓았던 것이다. 개신교나 천주교의 군 포교 정책과 지원에 비하여 너무도 부족했던 우리 불교의 군포교는, 포교의 효율성 이전에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하겠다.

이제 포교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군포교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체제의 정비를 통한 지원이 구체적인 단계를 밟으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종단 차원의 지원과 맞물려 일선 사찰과 신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일선 사찰과 신도들이 미래 불자들과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군포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불교계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명심했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조계종 올해는 선거의 해

8개 교구본사 주지·중앙종회 의원 선출 등

올해 조계종단은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저무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각 교구본사주지 선거, 동국대 총장 선거 등이 줄지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회 내 계파모임의 대립 등 선거열풍이 휘몰아칠 경우 자칫 교단의 이미지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일고 있다. 이는 예전의 일부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선거과열로 인한 폭력과 금품수수, 괴문서 배포 등이 발생할 경우 종단의 위상추락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여론이다.

여기에다 국가적으로도 4월 각당 대선후보경선, 6월 4대 지방선거, 8월 국회의원 재보선, 12월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선거일정이 예정돼 있어 종단 내외적으로 선거열풍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정리한 올해 선거일정 예정표에 의하면 8개 교구본사 주지선거가 2월부터 8월까지 예정돼 있다.

주요 교구본사 주지의 임기가 대부분 올해와 내년에 만료됨에 따라 실시되는 본사별 산중총회는 2월 용주사주지 재선거를 시작으로, 범어사(3월), 동화사(4월), 화엄사 불국사(6월), 마곡사 고운사(7월), 대둔사(8월) 선거가 치러진다.

교구본사 주지선거의 경우 각 말사 주지와 문중스님들 전원이 참가하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10월 31일로 예정된 제 13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의 경우 9월 공고이후 10월 선거운동(21~30일), 후보자 등록(21~23일), 직능직 종회의원 선거(21~27일), 종회의원 선거(31일)등의 일정이 잡혀 있어 후반기를 후끈 달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직능직 의원을 제외하고는 각 교구본사 별로 2~4명을 뽑는다는 점에서 문중간 대립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립 동국대 총장선거도 12월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국학원 이사장을 새로 뽑는 선거도 올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금횡령사건으로 종단과 심각한 갈등 현상을 보이고 있어, 동국학원 이사장 선거가 치러 질 경우 이와 맞물린 종단 대표직 자리의 이동에 따른 선거도 예상할 수 있다.

조계종은 올해 선거와 관련 선거관련 자료집을 작성하고, 총무부와 호법부 실무자로 구성된 선거 실무팀 구성, 선거관련 사무장 교육 실시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성태용(건국대) 교수는 "현재 세속적인 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며 "문중간 계파간 대결 일변도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스님들의 원만한 합의와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70여 직장직능·신행단체 관계자들이 5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모여 올해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동국학원 공금부정 조사

조계종 동국학원횡령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영담)는 8일 중앙종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17일 오후 2시에 동국학원 공금부정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영배스님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보고받기로 했다. 동국학원횡령 진상조사소위는 17일 횡령사고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18일 열리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 보고한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직장직능·신행·포교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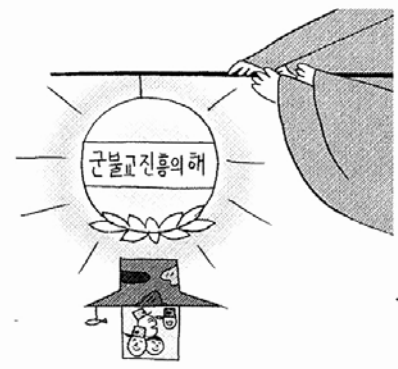
신년하례법회 봉행

직장직능·신행·포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신행 활동을 다짐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5일 대전시 유성구 스파피아 호텔에서 '2002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사)대한불교청년회 등 70여 단체 320여 불자들이 참석, 교리공부와 수련회 등으로 신심을 다지고, 불우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서원했다.

대전=오종욱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장병들을 불자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올해는 불교방송 가청권이 2배로 확대되는 것을 비롯해 범패 불화 등 중요무형문화재 문하생에게 학점을 부여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계에 새로운 환경변화가 예고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정책 중 중요사항을 소개한다.

●전담직 종무원채용=진각종은 올해부터 업무 전담직 종무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스승이 되기 전까지 종무를 보는 교화직 종무원이 주류를 이뤘으나, 올해부터는 업무 전담직과 교화직으로 구분한 종무행정 제도를 마련한다.

●연합 행자교육실시=조계종 교육원이 조계사 봉은사 등 서울지역 사찰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직할행자교육을 올해부터는 서울과 경기도 직할 사찰들을 하나로 묶어 실시한다. 시행 일정 및 횟수도 1일간 연 2회 실시해 오던 것이 2박3일간 연 4회로 늘어난다.

●문화재 지표조사 불이행시 처벌근거 마련=각종 개발 및 건설공사에 앞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문화재지표조사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건설공사의 대상 및 범위를 명백히 하고, 사업면적이 3만㎡미만인 건설공사는 시 도지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인정해제=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비윤리적인 범죄를 범했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고령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보유자로서의 명예와 정부 지원은 지속되나 이수증을 발급해 주는 권한은 상실하게 된다.

●중요무형문화재 문하생 학력 학점 인정=중요무형문화재 문하생에게 지위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고 학점 은행제를 통해 최소학점 이수 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교방송 가청권 2배 확대=춘천불교방송이 12월 개국될 예정이어서 경기 강원 지역의 방송포교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송신소가 남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전해 올해 초부터 서해 최북단 연평도는 물론 충·남북 일대까지 가청권이 2배로 확대된다.

●불교위성방송 시청=불교TV가 3월부터 위성방송 본방송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에 케이블 선이 들어가기 않았던 깊은 산중의 사찰에서도 위성 안테나만 설치하면 불교 TV를 볼 수 있게 된다.

●만5세 아동 무상보육 확대=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해당되던 만5세 아동 무상보육이 농어촌 및 도시지역을 포함, 전국 저소득층 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불교계가 운영 중인 일부 '어린이집'의 아동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자활후견기관 증설=보건복지부는 현재 169곳인 자활후견기관을 242곳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재활프로그램을 지원받던 시설도 22곳에서 48곳으로 대폭 늘린다. 현재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은 상주자활후견기관, 광주 송광복지관 등 10곳이 있다.

불교위성방송 3월부터 서비스

문화재지표조사 대상 범위 규정

제보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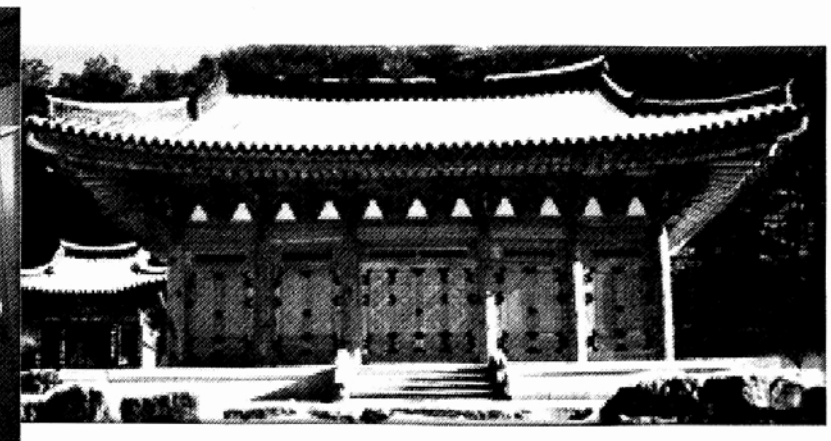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읍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 교상미국의 우진왕(優璡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 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 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복덕구족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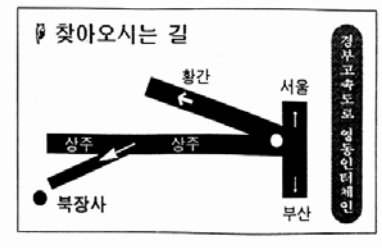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찾아오시는 길



교 통 편

◇고속버스 :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시면 됩니다